

# “인공지능·빅데이터...청년이 찾는 ‘큰 목표’ 만들겠다”



## 박홍률 목포시장 민선 8기 1주년 기자 간담회

### 스타트업 지식센터·K-디지털 플랫폼·스마트 그린산단 사업 추진 ‘삼학도 5성급 호텔’ 여론 수렴...전국체전 성공·의과대 유치 최선

“청년이 찾는 큰 목표를 만든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3일 상황실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큰 목표 실현’을 위한 희망찬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하루가 1년, 1년이 미래 100년을 결정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쉼 없이 뛰었다”며 “시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청년이 찾는 큰 목표의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1년의 성과로 청년정책을 먼저 꼽았다. 청년 스타트업 지식센터와 강소형스마트 시티 조성사업, K-디지털 플랫폼 공모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사업 등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청년 창업의 꿈을 이루게 해 줄 ‘청년 스타트업 지식센터’는 국도비 204억원을 포함해 모두 3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264억원이 투입될 강소형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친환경 전기 셔틀을 이용한 자율주행 교통과 스마트 업사이클링 솔루션으로 친환경 스마트 해양도시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국비 30억원이 확보된 ‘K-디지털 플랫폼 공모사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에 대한 교육 인프라와 메타버스 체험관을 구축한다.

청년을 위한 핵심사업인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은 분양수요와 산단위치,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이 외에도 신성장동력인 친환경선박과 수리조선산업 육성, 수산식품산업 중심지로 도약, 대규모 지역축제 성공 개최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선정, 목포-신안 통합 분위기 조성과 상생기반 마련 등을 성과로 평가했다.

특히 최근 소각장을 당초 대로 민간 투자자가 운영하는 스토커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이어 삼학도 5성

급 호텔건립에 대해서도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이들 사업은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무산될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삼학도 5성급 호텔은 수백억원이 투입될 삼학도 보존 정책에 위배된다는 사실상 불가를 공식화했던 사업이다.

박 시장은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은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위에 공익적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당초 중단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며, 현재 민간사업자가 자료를 보완 중이라고 박 시장은 밝혔다.

그는 “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공익적 차원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시장은 향후 역점시책으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 체전 성공개최 ▲문화예술이 살아숨쉬는 해양문화관광도시 도약 ▲원

도심과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정주여건을 개선할 녹색경관 조성 ▲교육정책과 복지정책 확대 ▲30년 숙원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유치 등을 제시했다.

제 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전은 양대제전이 목포의 위상을 높이고 스포츠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개·폐회식이 열릴 목포종합경기장과 주요 종목 경기장은 7월 말 공정이 마무리되는데 대중교통, 숙박, 음식점 등에 친철·친청·착한 요금 등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목포항구축제, 청년 신진작가와 함께하는 전국 유일의 목포문학박람회 성공개최는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장좌도 리조트, 울도·달리도 캠핑장 조성, 용해 생태체험시설 조성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더 많은 도전과 새로운 변화를 이뤄낸다면 큰 목표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며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오직 목포 발전만을 생각하며 시민들과 함께 청년이 찾는 큰 목표를 완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해남군, 화원산단에 400억 해상풍력개발 투자 유치

크레도오프쇼어㈜와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협약...2028년까지

해남군이 화원산단에 신안 해상풍력발전협의체 회장사인 크레도오프쇼어㈜의 4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화원산단은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배후단지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지난 30일 전남도와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투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유치 협약을 맺었다.

투자설명회에는 해상풍력 기자재 등 관련 기업 40여 개사와 15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남도와 해남군, 대한조선(주), 크레도오프쇼어㈜의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이 이뤄졌다.

크레도오프쇼어㈜는 신안 해상풍력발전협의체 회장사로 전남에서 4.5GW 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화원산단에 400억원을 투자, 해상풍력 기자재 관련 생산과 관련된 전초기지로 세울 계획이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화원산단을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산업 집적단지 조성할 방침이다.

오는 2026년까지 민간개발 방식으로 화원산단 배후부지 219만㎡를 조성해 이 중 113만㎡를 해상풍력 관련 기업에 우선 분양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설명회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출자자 모집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상반기 부지



명현관(맨 오른쪽) 해남군수가 지난 30일 서울에서 열린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투자설명회’에서 400억원 규모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시설 투자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조성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남 화원산단은 2026년까지 개발 가능한 국내 유일의 임해(臨海) 산단으로 꼽힌다.

이 산단은 단일 부지 안에서 해상풍력 발전기 제작을 위한 모든 업종의 집적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연결도로가 2027년 개설했을 예정이다.

해남군은 아울러 이날 산이면에 조성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소개하기도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 화원산단은 정부의 풍력사업 확대에 따라 연관 기업들의 신규 투자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해남군은 해상풍력 배후단지 최적지로서 화원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완도군,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 공모 선정

150억 확보...2026년까지 군내리 구도심에 건립

완도군이 ‘2024년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청년 공공 임대주택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한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다.

군은 최대 현안 사업인 해양치유센터의 본격 운영,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물관 건립 등으로 수요가 폭증할 청년층의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

청년 공공 임대주택(60호)은 2026년까지 3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계정 90억원, 기초 계정 60억원 등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완도

읍 군내리 구도심 지역에 건립된다.

사업 대상지 주변에는 청년센터, 청년상가, 청년 마을 등이 있어 청년 주거와 연계한 청년 지구가 조성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입주 대상을 청년·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으로 선정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인구의 유입을 촉진, 인구 감소난제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청년 공공 임대주택이 건립되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 등 각종 사업과 청년 일자리 연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영광군, 복지·보건 분야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영광군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보건 분야’ 제4행정에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영광군은 5일 서울공공호텔에서 열린 ‘제28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복지보건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제28회째를 맞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매년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한다.

올해는 총 6개 분야에 대해 두 차례의 서면평가와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인터뷰 심사 등 4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영광군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아빠우아유치 장려금 지급, 응급환자 이송 경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주민만

족도가 높은 제4행정 시책으로 복지·보건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저출산 극복과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청년·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돌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영광군은 합계출산율 4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우리 군은 타 지자체 보다 비교우위의 행정으로 전생애 복지제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국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모두가 잘 살고 풍요로운 영광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우 기자 jylee@kwangju.co.kr

## 해남 사회적경제 기업 5년만에 두 배...지역 경제 ‘마중물’

올해 122곳으로 70여 곳 늘어

해남군 사회적경제 기업이 급증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해남군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현재 122곳으로 2018년 54곳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다.

관련 예산 또한 2018년 1억여원에서 올해는 12억여원으로 증가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4가지 유형이 있다.

해남에는 사회적기업 11개, 마을기업 20개, 자활기업 5개, 협동조합 86개가 설립됐다.

사회적경제 기업 증가는 민선 8기 중점과제로

‘사람 중심 사회적경제 확산’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해남군은 해남형 사회적기업을 자체 육성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사회적기업을 지속해 발굴·육성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흑산도·진도서 친환경 도시락 즐기세요”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무소 지역 특산물 활용 도시락 제작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락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사무소는 (주)민간계마을기업 민간살롱과 최근 ‘친환경 도시락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서부사무소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찾는 탐

방객들에게 친환경 다화용기에 담은 도시락을 제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탬 생각이다.

친환경 도시락은 진도 조도, 신안 흑산도·홍도·도초도·비금도 등을 찾는 탐방객이라면 즐길 수 있다.

도시락 이용 방법 등은 카카오톡 채널 ‘다도해서부내 도시락’을 구독해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세열골

## “신안 특성에 맞게 풍수해 대비하겠다”

류도형 신안소방서 서장



“신안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대응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안소방서 2대 서장에 최근 취임한 류도형(사진) 서장은 이 같은 포부를 밝히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류 서장은 지난 3일 취임하며 풍수해 우려 지역인 압해읍 가래지구 등을 찾아 장마 대비 현황을 점검했다.

신안소방서는 집중 호우 때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펼쳐 신안지역 특성에 맞게 풍수해에 대비할 방침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무안군, 남도 숙박할인 이벤트

무안군이 이달부터 연말까지 외국인인 1박을 하면 숙박비를 최고 4만원을 할인받는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를 한다.

이 할인행사는 ‘2023 전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진행된다.

광주·전남 외 다른 지역에 사는 관광객이 무안지역 지정 숙박업소에 가면 1박 기준에 따라 숙박료를 10만원 이상은 4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1인당 1회 10박(연박)까지 가능하다. 이용할 숙박업소에 전화로 예약한 뒤 입실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지정 숙박업소는 숙박비를 할인해 준 뒤 참여자가 작성한 신청서와 청구서를 무안군에 제출하면 14일 이내 청구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